

# 무등산 방송통신탑 ‘존치’보다 ‘이전’ 여론이 더 높아

## 광주역 존치 여부

호남선 고속철도(KTX)가 개통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호남선 KTX 노선이 끊긴 광주역 주변 상권이 몰락하면서 광주역 존치여부와 개발 등의 문제가 풀어야 할 속제로 남았다.

## “송정역 통합·부지개발” 55%... “KTX 운행” 37%

### ■ 시민에 물어보니

호남선 KTX노선 변경에 따른 광주역 존치여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36.8%가 호남선 KTX의 광주역 재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7.7%였고, 광주역을 폐쇄하고 광주역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7.4%였다. 이 같은 두 가지 응답률을 합하면 55.1%로, 사실상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통합한 뒤 광주역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광주역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랐다. 광주역 인근 자치구와 송정역 인근 자치구 주민들 간 이견이 컸다.

북구지역과 동구지역 응답자 중 각각 56%, 55.4%는 호남선 KTX의 광주역 재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고, 담양·완주·광산·서구지역은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통합하자는 응답자가 각각 37.7%, 40.7%로 높았다.

남구는 호남선의 KTX의 광주역 재운행 응답이 39.8%로,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통합하자는 응답률(26.4%)보다 높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17명중 13명 “폐쇄·송정역으로 통합해야”

### ■ 국회의원 당선인에 물어보니

20대 총선 당선인 상당수는 광주역 처리 문제에 대해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호남선 KTX 노선변경에 따른 광주역 주변지역 공동화가 심각해, 광주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7명(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병중 제외) 중 7명(38.8%)은 송정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응답자 33.33%인 6명은 광주역 폐쇄 후 광주역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1.11%인 2명은 호남선 KTX 광주역 재운행이라고 답했다.

일부 당선자들은 기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광주지역 한 당선인은 ‘서울 수서역 출발 KTX 일부 광주역 운행’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1년 넘도록 존치-폐쇄 여론 엇갈려 ‘평행선’

### ■ 진행 상황 어디까지

호남선 KTX가 진입하지 않는 광주역을 둘러싸고 1년여가 넘도록 존치와 폐쇄로 갈린 여론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접근성 강화를 위해 KTX의 광주역 진입 필요성과 광주역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통합하고 광주역사 재배치를 통한 부지 개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역 존치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광주시와 북구, 시의회와 북구의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지만,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주역 활성화 문제를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과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광주역 KTX 운행재개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호남선 일부 편수를 정읍역에서 분리·분기해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또 오는 6월 수서역 개통시점에 맞춰 KTX 광주역 운행재개, 서대전역 경유 익산행 KTX의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 등도 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도 하루 10~15편 정도 운행 가능성이 높아 활성화 문제를 푸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쇠락하고 있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두 공항의 통합 문제가 ‘재점화’됐다.

## “광주 군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 30.1%

### ■ 시민에 물어보니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 광주·전남 지역민 10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주 군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0.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응답률이 41.0%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22.1%에 그쳤다.

특히 무안공항이 소재한 전남 서부권에서는 응답률이 9.6%에 그쳐 군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높았다. 이어 군·민간공항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9.0%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응답률과 전남 응답률이 각각 27.9%, 29.7%로 큰 차이가 없었다. 두 공항 모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9.8%였다. 전남지역은 21.4%로 광주 응답자(17.7%)보다 높았다.

광주 민간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12.7%였다. 전남지역 응답률이 15.5%로 높았고, 광주 응답자는 8.9%에 그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11명이 “군·민간공항 모두 이전해야”

### ■ 국회의원 당선인에 물어보니

광주·전남 당선자 10명 중 6명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선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61.11%인 11명은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4명(22.22%)은 광주 군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둘다 존치해야 한다’와 ‘민간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답변은 각각 1명(5.56%)씩이었다.

특히 광주지역 당선자들은 무안공항 모두 이전 또는 광주 군공항만 무안 이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전남지역 당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시,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 ■ 진행 상황 어디까지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 문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내부 논의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어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이라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두 공항 통합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고, 국방부가 타당성 평가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전망이다. 이 평가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부지 선정, 2025년까지 이전사업이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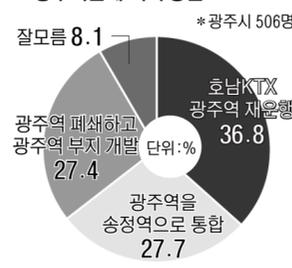
하지만, 새로운 군 공항 건설에 따른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5조~6조 원에 이르는 재원확보 등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광주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건의서에 따르면 평가의 주요 항목인 종전 부지 활용 방안은 오는 2025년까지 군 공항과 광주공항을 묶어 이전한 뒤 첨단산업·문화 복합단지인 기성 ‘솔마루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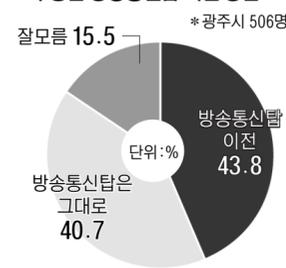
현 광주 군 공항의 규모는 831만㎡이며 이전 비용은 3조5000억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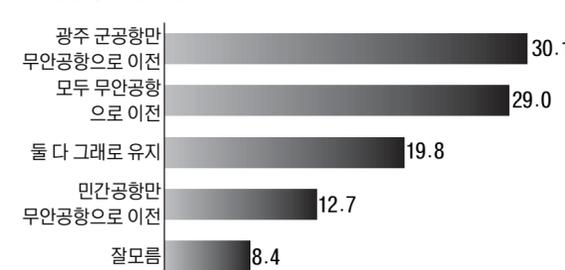
### ■ 광주역문제 처리 방안



### ■ 무등산 방송통신탑 이전 방안



### ■ 무안공항 이전 방안 (단위: %)



## 무등산 방송통신탑

국립공원 지정 이후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첫단추가 채워지면서 장봉재와 중봉·북봉에 우뚝 선 방송·통신탑 이전이 무등산 복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무등산 곳곳에 솟은 거대한 첩탑 덩어리를 이제는 걷어내자는 목소리가 환경단체, 탐방객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다 방송·통신탑의 이전부지도 조사됐지만 이전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 “생태환경·경관 침해 ... 이전해야” 43.8%

### ■ 시민에 물어보니

광주지역민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무등산 방송통신탑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의견은 절반으로 갈렸다. 무등산 생태환경과 경관을 해침에 따라 방송통신탑도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3.8%였고, 이전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방송통신탑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응답은 40.7%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6.2%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40대(43.1%)·50대(43.9%)에서도 이전해야 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성별로는 의견 차이가 컸다. 남성 응답자 절반 이상인 50.3%는 방송통신탑도 이전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 41.5%는 방송통신탑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답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방송통신탑 존치해야” 입장 한명도 없어

### ■ 국회의원 당선인에 물어보니

광주·전남 당선인 대다수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 무등산 방송

통신탑 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탑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을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